

여수, 청정수소 포럼 개최…국가산단 에너지 전환 모색

청정수소 산업 육성·여수국가산단 친환경 전환 모색

여수시는 2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남광주 청정수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순광 행정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며,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산·학·연·관·민 관계자들이 참여해 청정수소 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여수 국가산단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석유와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기술·경제 로드맵 발표와 섬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수소산업 추진 계획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에너지 전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행사장에는 수소모빌리티와 수소선박, 친환경 수소연료 활용 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며, 시민들이 수소산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수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행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축으로 청정수소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

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지역 산업계가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공유하고, 청정수소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등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정수소 산업의 국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모델과 중장기 발전 전략도 검토한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청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3년 연속 관람객 300만명 돌파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이 3년 연속 연간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과 나무,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된 점도 관람객 유입의 요인으로 꼽힌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생태를 기반으로 한 휴식·치유·교육·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찾는 휴식 공간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유빈 기자

광양시, 2026년 제1회 경제결정위원회 개최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19일 '2026년 제1회 경제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옥룡면 추산1·추산2·용곡2지구의 토지 경계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개선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담은 디지털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형주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적·부동산 분야 전문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옥룡면 추산리 추산1지구 878필지(390,794.5㎡), 추산2지구 695필지(353,983.3㎡), 용곡리 용곡2지구 980필지(511,256.0㎡) 등 총 3개 지구 2,553필지(1,256,033.8㎡)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줄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2025년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 성황리에 마쳐

곡성군은 지난 8월 30일 곡성문화체육관에서 '2025년 곡성군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곡성군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다문화가족 400여 명이 참석해 공연과 작은 운동회를 즐기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투드림 난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곡성에 정착한 7개 국가와 대한민국의 기수식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공헌한 지역주민과 프로그램 강사,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다문화가족의 가치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옥과한우촌 김해란 대표와 남편 자조모임 열린마당 대표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김해란 대표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다문화가족에게 티셔츠 350장을 후원했다.

2부에서는 곡성군가족센터 직원들의 댄스 공연과 다문화가족들의 엄마 나라 동요 공연이 펼쳐져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을 도왔다. 이어진 작은 운동회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화합을 다졌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다문화가족이 곡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체험행사 성료…3295명 방문

구례군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열린 환경생태 체험행사에 4일간 329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례군은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개최한 특별 기획행사 '지구별 환경생태 탐험대'가 방문객 3295명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존 관람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친환경 나무 놀이터를 비롯해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재활용 상자를 활용한 박스놀이, 캠핑·밭놀이, 업사이클링 악기 만들기, 동물 생태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전기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나무놀이터와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정크워크숍을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높여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생태체험 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동물의 특징과 서식환경을 관찰하며 생물다양성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의 대표 생태자원인 천연기념물 수달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달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렸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